

2008 새해설계 ⑦

포천시골프협회 회장 이한일

포천시 골프협회 위상강화 위해 노력

골프장 허가심의과정에 골프협회 참여해야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자격은 관내거주자, 사업자등록이 관내에 되어 있는 자, 본적이 포천시로 되어있으면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체육대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장학금전달사업, 골나무 육성지원사업, 지역골프동호인의 대변역할, 권익보호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개 동호회가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 회장은 포천시골프협회는 그동안 경기도체육대회 종합우승 2회, 우승 3회 등 포천시가 경기도체육대회 7연패를 차지하는데 걸인차 역할을 한 중목이라고 밝혔다.

1999년부터 3년간 필로소 GC 3연대 챔피언으로 유명한 이 회장은 1985년에 골프에 입문해 포천시 골프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포천시골프협회는 1998년에 창립했으며 2007년2월25일 이한일(54·사진) 회장이 취임했다. 이 회장은 포천시골프협회 전무이사로서 8년간 봉사했으며 포천시 골프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매년 포천시골프협회는 각읍면대항은 체육회장기, 각 연습장대항은 협회장기, 개인전은 신페리오방식으로 협회장기로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평소 엘리트 16명의 선수를 선발해 3월중에 선수선발전을 통해 4~6명으로 압축하고 최종 5명이 경기에 출전하게 된다.

포천시골프협회는 관내 학교체육 발전을 위해 장학금 전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동남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는데 어느 날 장학금을 받은 선수가 다른 시군대표로 출전하는 것을 보고 포천시가 본적인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골나무 육성을 위해 화현초·이곡초·삼정초등학교에 매년 50만원씩을 전달할 계획이며 화현초등학교에는 동계훈련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골프장경영자모임과도 유익적인 만남을 통해 환경문제해결방안과 포천에 거주하는 동호인들에게 작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몽베르와 필로소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린피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고 한다.

이 회장은 포천시가 골프장 허가심의과정에서 포천시골프협회의 자문을 위해 심의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포천시골프협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길이기도 하다. 포천신문사에 바라는 사항은 협회장기 골프대회를 함께 개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포천 동호인들이 하나로 묶여져 골프인의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촉매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추천! 이야기 한마당



이보용 본지 지문위원장

한 미술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 구를 쟁겨 들고 집을 나서 긴 여행을 시작하였다. 여행길에 나선 미술가는 먼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막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냐고 물었다. 그러자 신부는 수줍어하며 대답했다.

"사랑이지요, 사랑은 가난을 부유하게, 적은 것을 많게, 눈물도 달콤하게 만들지요. 사랑 없이는 아름다움도 없어요." 화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목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목사는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간절한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습니다."하고 말했다.

그는 목사의 말에도 수긍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무엇이 있을 것만 같았다.

때 마침 지나가는 한 지친 병사에게 물었다. 병사는 "무엇보다 평화가 가장 아름답고, 전쟁이 가장 추하지요"라고 답했다.

순간 화가는 사랑과 믿음과 평화를 한데 모으면 멋진 작품이 될 것 같았다.

그렇다면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함께 있는 그림을 그리려면 무엇을 그려야 할까?

미술가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려 하였으나 좀처럼 그 대상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제는 가지고 있던 돈도 떨어져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고 차를 탈수도 없었다.

그는 끊임없이 고향으로 그 대상을 찾고자 하였으나, 몸도 마음도 지치고 그림도 한 장 그리지 못했다.

미술가는 집 생각이 났다. "그래 집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꼭 쉬자!" 미술가는 집으로 향했고, 어두

워질 무렵 집에 도착하였다. 초인종을 누르자, "누구세요?"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함께, 아빠의 목소리를 듣자 일제히 "아빠다!" 하고 아이들이 함성을 지르며 문을 열어주었다.

오랜만에 아빠의 모습을 보자 아이들은 껴안고 얼굴을 부비고 아빠에게 매달렸다.

아마도 저녁식사 시간인지 식탁 위에는 밥과 반찬이 차려져 있었고 그 미술가의 아내는 "이제 오세요?" 시장하시죠? 어서 식탁으로 가서 앉으세요."

하고 반기운 미소로 남편인 미술가를 맞이하였다.

미술가는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아! 나의 가정, 나의 아내, 나의 아이들, 바로 이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미술가는 그의 가족들을 그린 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문의 011-342-5834)

“文인들이 문화예술 발전의 中心에 서야”

이중희 포천문협 제4대 지부장 취임식에서 밝혀

(사)한국문인협회 포천시지부 제4대 지부장으로 이중희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장이 4월4일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는 리효종 한시협회 포천시지부장, 최중규 포천명유회 회장, 이석구 포천향토사연구소장, 이민구 포천문화원장, 이희용 포천예총회장 등 문화예술단체장과 김년국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최호열 포천신문사 대표이사, 이보용 포천신문사 지문위원장 등 내빈과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사)한국문인협회 포천시지부 제4대 지부장으로 이중희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장이 4월4일 취임식을 가졌다.

내빈소개와 취임사, 감사패 수여, 임명장 수여, 축사, 축사, 케익절단 및 건배제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이중희 지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21세기의 화두는 문화예술의 발전에 있다"며 "문인들이 문화예술 발전에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년국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문인협회 1만여명의 회원들을 대신하여 제4대 포천시문인협회 이중희 회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오늘 이중희 회장의 취임에 밝힌대로 포천문인협회가 크게 발전하기를 기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리효종 한시협회 포천시지부장은 축사를 통해 "조선 500년 역사동안 최고의 임금은 세종대왕이고 그 다음으로 정조대왕은 문예증흥을 이룬 군주로 떠 받들고 있는데 정조대왕을 뒷받침해 준 세 사람 중에 포천 양문대신 이서구 선생님이 계시고 조선 중기 흥길정전을 쓴 허균이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 허엽이 강원도로 이사한 후

에 허난설헌을 낳았다"고 밝히고 "따라서 포천은 문항의 고장이라고 강조하고 우리 문항 포천을 포천문인들이 빛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석구 향토사연구소장은 "이중희 시인은 노익장하면서 젊은 시 절의 순수함이나 열정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일기 3년의 기간동안 문인협회가 한 단계 작품을 통해 발전하는 단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

했다.

이민구 포천문화원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오늘 새로 취임하시는 이중희 회장의 활약을 크게 기대하며 지역 문학 인구의 저변 확대와 회원들의 좋은 창작품이 다수 나오도록 많은 수고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희용 포천예총회장은 "문인협회 제4대 이중희 지부장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오늘 축하의 마당에 전임 이재욱 회장이 함께 자리를 했다면 더욱 좋았을텐데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포천문인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서는 신입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윤종성 포천신문 지문위원의 색스폰 연주 및 연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임 이재욱 지부장에 대한 감사패는 전임 사무국장으로부터 활동한 이원용 부지부장이 대신 받았다.

한국문인협회 포천시지부 제4대 회장단 및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 ▶지부장 이중희 ▶부지부장 이원용 ▶부지부장 김영복 ▶감사 안유진 ▶감사 윤순옥 ▶이사 안정웅 ▶이사 이인용 ▶이사 김명근 ▶이사 손영배 ▶이사 정기모 ▶이사 강돈희 ▶이사 강현남 ▶이사 박해자 ▶이사 이희우 ▶이사 용경자 ▶사무국장 김선진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대학생 입학 자녀 장학금 5390만원 지급

加山農協, 가산 43명·내촌 34명의 조합원 자녀에게

가산농협동조합(조합장 심재호)은 4월5일 10시 가산농협에서 조합원 자녀 77명에게 장학금 70만원씩 5천390만원 전달하고 학업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 심재호 조합장은 "장학금을 받은 신동희 군을 비롯한 77명의 대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께 조합원을 대표하여 축하드립니다"며 "내년부터는 조합원마다 장학금 지급수 5점 미만인 조합원의 자녀에게는 장학

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 조합장은 지난해 농협 전이용실적을 파악한 결과 가장 많은 이 용을 한 조합원에게 현금으로 790만원과 사업준비금으로 700만원 등 1천490만원을 배당한 적이 있다고 말하고 농협전이용에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가산농협은 2002年度에 처음 장학금 지급을 시작하여 오늘까



가산농협동조합은 4월5일 10시 가산농협에서 조합원 자녀 77명에게 장학금 70만원씩 5천390만원 전달하고 학업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지 7년에 걸쳐 총 506명에게 3억4천8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사랑의 성금 후원자 신청서 전달

포천시 영북면, 독거노인 저소득층 후원회 결성

포천시 영북면은 지난 7일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후원회를 결성(대표 정해균 영북면 의용소방대장)하고 사랑의 후원자 신청서 전달식을 가졌다.

후원회는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찾아주지 않는 140여명의 저소득층 가구를 선정하고 생신날 직접 방문하여 음식을 만들어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기쁨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이성원 영북면장은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로부터 소외감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삶의 의욕을 주어 감사하다"며 후원회의 선정을 치하했다.

정해균 후원회 대표는 "형식적인 방문과 도움에서 탈피하여 주기적 관심을 통해 독거노인들의 생활실태를 느끼고 진실한 마음으로 봉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하승원 기자 forme85@paran.com



포천시 영북면은 지난 7일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후원회를 결성하고 사랑의 후원자 신청서 전달식을 가졌다.

전기안전관리 등불...!!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대표 안병호

전기안전관리 대행 업무

전기설비의 점검 및 진단

최첨단 측정 장비 보유

신속하고 철저한 서비스

점검대상 : 학교, 관공서, 빌딩, 공장 등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안전점검 및 A/S 대책회의



변압기 정밀점검

고객의 전기시설물을 경제적, 기술적으로 관리하며 전기안전을 책임지는 기업

회사명 : (주)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TEL : 031)541-9111~4 FAX : 031)541-9115